

1. 경사이신(敬事而信), 식무구포, 거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

경사이신(敬事而信)

수레 천 대를 낼 수 있을 정도인 제후의 나라를 다스릴 때, 정사를 신중히 하여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재정의 지출을 잘 조절하여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에는 그들의 상황을 잘 보아가면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야 한다.

자왈,
 子曰,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절용이애인, 사민이시.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논어(論語)』, 「학이(學而)」

도(道)

- ‘導’자로 쓰는 판본도 있음
- 여기서는 다스리다는 뜻

천승지국 (千乘之國)

- 전쟁에 쓰이는 수레 천 대를 낼 수 있는 규모의 국가로 제후의 나라
- 만승지국(萬乘之國)[만 대의 수레를 가진 나라]: 천자의 나라
- 백승지가(百乘之家)[백 대의 수레를 가진 집안]: 대부의 집안

경사(敬事)

- 일을 공경하다.
-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함
- 주희의 집주에서는 ‘경(敬)’을 한결같다는 뜻으로 해석

1. 경사이신(敬事而信), 식무구포, 거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

절용(節用)

- 쓰는 것을 절약하다.
- 국가의 재정지출을 잘 조절하는 것

이시(以時)

- 때로서 한다. 즉 때에 맞게 한다는 것
- 백성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킬 때에는 농한기 등의 한가한 때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경사(敬事)

- 일을 공경하다.
-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함
- 주희의 집주에서는 ‘경(敬)’을 한결같다는 뜻으로 해석

☑ 『집해』의 포함

- 나라는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 대해서 반드시 성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것임으로 백성을 아끼고 길러야 한다.
- 일을 벌여서 백성을 부리는 데는 농사일을 방해하고 빼앗지 않아야 한다.

☑ 공자의 정치론

- 제후의 군주인 리더가 통치에 있어서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는지를 언급한 것
 - 일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다.
 - 국가 재정을 절약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 백성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한다.
- 모두 백성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제후국의 군주가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한 구절

1. 경사이신(敬事而信), 식무구포, 거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

식무구포, 거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

군자는 먹는 것에 대해 배가 부르는 것만을 중시하지 않으며 거처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만을 중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일을 행하는 데에는 민첩하게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신중하게 하고 올바른 도리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배우기 좋아한다고 말할 만하다.

자왈,
 子曰,

“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민어사이신어언, 취유도이정언,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가위호학야이”
 可謂好學也已”

『논어(論語)』 「학이(學而)」

구포(求飽)

- 배부름을 구하다.
- 배불리 먹기만을 중시한다는 말

민(敏)

- 민첩하다. 빠르게 하다.
- 뒤에 나오는 ‘慎(신)’은 이와 반대로 신중하게 하다는 뜻

유도(有道)

- 올바른 도리가 있는 곳, 혹은 올바른 도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1. 경사이신(敬事而信), 식무구포, 거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

- 정언(正焉) - 그것(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다.
 -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르게 고치는 것

- 야이(也已) - ‘也’ 뒤의 ‘已’는 감탄의 어기를 더해준 것

① 『집해』의 정현(鄭玄)

- 편안함과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학자의 뜻에 그것을 구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鄭曰, “學者之志有所不暇.”)

② 『집주』의 윤씨(尹氏)

- 군자의 學이 이 네 가지에 능하면 篤志(독지), 역행力行(역행)하는 자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道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착오가 있음을 면할 수 없다.
- 진정으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군자의 실천 방식
- 먹는 것에서 배부르거나 맛있는 것만 중시하지 않으며 거쳐하는 데에 있어서도 편안한 곳을 추구하지 않는다.
 -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어서 육체적인 배부름이나 편안함 같은 것은 그에 비해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임
- 실천하는 것에서는 남들보다 빠르지만 말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훨씬 신중함
- 주변에 진정으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배우려고 하고, 자신이 모르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임
- 공자는 실천하는 사람이면 진정으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함

2.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군자가 중후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위엄이 없게 되며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 언제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충(忠)과 내실이 있어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信)을 위주로 한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고치는 것에 대해 주저하며 망설여서는 안 된다.

자왈,
 子曰,

군자불중, 즉불위, 학즉불고.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과즉물탄개.
 過則勿憚改.

『논어(論語)』, 「학이(學而)」

중(重) - 중후하다.

불위(不威) - 위엄이 없다.

고(固) - 견고하다.
 - 때로 '고루하다'로도 해석됨

주(主) - 주인으로 삼다, 혹은 친하게 여기다.
 - 어떤 원칙을 위주로 하다고 해석되기도 함

무(無) - ~하지 말라.
 - 금지를 나타내는 '勿'과 통함

탄(憚) - 꺼리다. 싫어하다.

2.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 나이에 따른 성숙의 과정

자왈,
子曰,

오십유오이지우학
吾十有五而志于學

삼십이립
三十而立

사십이불혹
四十而不惑

오십이지천명
五十而知天命

육십이이순
六十而耳順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 15세 - 학문에 뜻을 두다.
- 30세 - 확고한 나의 입장을 갖게 되다.
- 40세 - 삶의 방향에 의심이 없다.
- 50세 - 하늘의 뜻을 알게 되다.
- 60세 - 모든 것을 거스름 없이 받아들이다.
- 70세 - 마음을 따르지만 법도를 넘지 않는다.

3.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 학이사(學而思)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만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고를 발전시켜 올바른 사유를 해나가는 데 해가 된다.

자왈,
子曰,

공호이단, 사해야이.
攻乎異端, 斯害也已.

『논어(論語)』 「위정(爲政)」

공(攻)

- (1) 공격하다 (2) 공부하다

호(乎)

- 어(於)와 같음
- “동사+乎(於) +목적어” 구조를 이룸

이단(異端)

- 유가와 다른 학설이나 학파
- 집해: 귀착점을 달리하는 것
집주: 양주나 목적처럼 성인의 도리가 아닌 것

사(斯)

- (1) …면, 則 (2) ‘이’ 해로움

해야이(害也已)

- (1) 害也+已 - 이때 ‘已’는 ‘그치다’는 뜻
- (2) 害+也已 - 이때 ‘也已’는 “… 일 뿐이다”라는

뜻의 문미에 쓰이는 여기서

3.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 학이사(學而思)

☑ 양주(楊朱)

- 극단적 이기주의를 표방한 도가사상가

☑ 묵적(墨翟)

- 온 천하를 모두 똑같이 사랑할 것을 주장
- 나와 남의 자식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묵가의 사상

☑ 친친이인민(親親而仁民)

- 가까운 친척과 부모를 친하게 여기고,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자.

☑ 공(攻)의 의미

- 공부하다
 - 『집해』, 『집주』, 황간의 『의소』
 - 이단을 공부하면 해로울 뿐이다.
- 정리하다, 그치다
 - 清代 초순(焦循)의 『補疏』
 - 이단을 정리하면 해로움이 그친다.
- 이단을 공격하면 그 해로움이 그친다.

3.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 학이사(學而思)

학이사(學而思)

이전 시대의 경험을 배우기만 하고 그 배운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있을 뿐 이전 시대의 경험을 배워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가려고 하지 않으면 허황되어 위태롭게 된다.

자왈,
 子曰,

학이불사즉망,
 學而不思則罔,

사이불학즉태
 思而不學則殆

『논어(論語)』, 「위정(爲政)」

학(學)

- 배움, 과거의 지식에 대한 학습 혹은 전인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는 것

사(思)

- 생각, 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사유

망(罔)

- 집해: 흐릿하게 얻은 것이 없음

- 황간: 속는다

- 주희: 어둡고 얻은 것이 없음

태(殆)

- 집해: 정신이 피로함

- 주희: 위태롭고 불안함

- 왕념손(王念孫), 왕인지(王引之): 의심스럽다

3.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 학이사(學而思)

㉠ 『집해』

- 배우기만 하고 그 뜻을 풀어 생각하지 않으면 흐릿하게 얻는 게 없다. 또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면 끝내 얻지 못한다. 사람 마음만 피곤하게 한다.

㉡ 『집주』

- 배우기만 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워서 얻는 것이 없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았음으로 위태롭고 불안하다.

